

[매뉴얼 3] 안심 케어 다이어리 보호자 활용 가이드

부제: 내 손안의 영양원, 24시간 연결된 안심

1. 들어가며: "오늘 부모님은 어떠실까?"

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. 전화해서 묻지 않아도 됩니다.
'안심 케어 다이어리'를 켜는 순간, 부모님의 하루가 투명하게 보입니다.

보호자님께 드리는 3가지 약속

1. **투명함:** 식사량, 기분, 투약 여부를 숨김없이 보여드립니다.
2. **연결:** 궁금한 점은 영양보호사와 앱으로 바로 소통합니다.
3. **안전:** 위급 상황 시 가장 먼저 알림을 받습니다.

2. 핵심 기능 1: 데일리 리포트 (오늘의 하루)

"아침, 점심, 저녁... 밥은 잘 드셨을까?"

앱 메인 화면에서 부모님의 하루 일과를 그래프와 사진으로 확인하세요.

- **기분 날씨:** 오늘 부모님의 컨디션을 '맑음/흐림' 아이콘으로 보여드립니다.
- **식사/수면:** 식사 섭취량(%)과 수면 시간을 그래프로 확인합니다.
- **활동 사진:** 프로그램 참여 모습이나 산책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받아보세요.
 - Tip: 사진에 '좋아요(하트)'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양보호사님께 큰 힘이 됩니다.

3. 핵심 기능 2: 안심 톡 (공식 소통 채널)

"전화나 카톡으로 하기엔 미안하고, 궁금한 건 많을 때."

시설에 전화해서 업무를 방해할까, 밤중인데 카톡해서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세요. 공식 소통 채널인 '안심 톡'으로 남기면 됩니다.

- **문의하기:** "어머니 내복 다 떨어지진 않았나요?", "주말에 면회 가도 될까요?"
- **요청사항:** "아버지가 요즘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. 낮잠 좀 줄여주세요."
- **답변 알림:** 영양보호사가 확인 후 답장을 남기면 푸시 알림이 옵니다.

"죄책감 없이, 당당하게 물어보세요."

그동안 궁금한 게 있어도 "바쁘실 텐데...", "밤늦게 죄송해서..." 하며 카톡 보내기를 주저하셨나요?

이제 개인 메시지가 아닌, **시설 공식 채널**로 마음 편히 소통하세요.

카카오톡과 무엇이 다른가요?

1. **공적인 기록:** 여기 남긴 대화는 '사담'이 아니라, 어르신을 위한 '공식 케어 요청서'가 됩니다. (시설장님도 함께 봅니다.)
2. **부담 없는 소통:** 밤 10시에 생각난 걱정거리, 참지 말고 보내세요. 직원은 다음 날 출근해서 업무 시간에 확인합니다. (**직원 퇴근 시간엔 무음 처리**)
3. **사생활 보호:** 서로의 전화번호나 프로필 사진을 노출하지 않고, 사담이 아닌 오직 '어르신 케어'에 관한 소통 채널로 우리 부모님의 케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.

□ **보호자님의 한마디:** "카톡은 보낼 때마다 눈치 보였는데, 이건 '우리 부모님 전용 소통방' 같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남겨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답변도 훨씬 전문적이고요."



4. 안심 특의 진짜 가치: 말 한마디도 데이터가 됩니다.

"카톡은 흘러가지만, 안심 특은 쌓입니다."

카카오톡 대화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. 하지만 안심 특에 남긴 대화는 AI가 분석하여 케어에 반영합니다.

- Before (카톡): "어머니가 요즘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." → (직원: "네, 알겠습니다.") → 끝 (잊혀짐)
- After (안심 특): 같은 말을 남기면?
 1. AI 분석: [수면 장애 호소], [야간 불안] 키워드 추출.
 2. 데이터 반영: 어르신의 '프로필(DNA)'에 야간 케어 필요 속성이 추가됨.
 3. 행동 변화: 다음 날부터 야간 근무자에게 "이 어르신은 수면 체크를 더 자주 하세요"라는 알림이 자동으로 뜹니다.

보호자님의 한 마디가 부모님을 위한 '맞춤형 돌봄 규칙'이 되어 돌아옵니다. 이것이 세만AI의 기술입니다. 안심 특을 통해 보호자들은 AI를 가동시켜 부모님을 함께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.

5. 핵심 기능 3: 세이프가드 알림 (위기 공유)

"무슨 일이 생기면,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."

만약 부모님이 넘어지시거나 편찮으실 때, 시설에서 숨길까 봐 걱정되시나요?

세만AI는 기계가 감지한 위험 신호를 보호자님께도 투명하게 공유합니다.

- [긴급 알림]: "낙상 감지됨", "바이탈 이상(고열)" 등의 알림이 뜨면 즉시 확인하세요.
- 상황 브리핑: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는지, 119를 불렀는지,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실시간 타임라인으로 보여드립니다.
- 투명한 공개: 사고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뢰의 시작입니다.

[보호자님을 위한 꿀팁]

1. **'관심' 표현하기:** 매일 리포트를 확인하고 "감사합니다"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. 내 부모님을 돌보는 분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.
2. **정보 업데이트:** 부모님의 드시는 약이 바뀌거나, 병원 다녀온 기록이 있다면 앱의 [건강수첩]에 올려주세요. 시설에서도 그 정보를 보고 케어합니다.

가족의 마음으로 연결합니다.

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곁에.

안심 케어 다이어리가 부모님과 가족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겠습니다.

©세만AI 2026